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6년 4월

“개도국과 농업협력 체계화 시급”

‘농업분야 국제협력의 과제와 추진전략’이란 주제로 워크숍 개최



농업분야 국제협력 과제를 살펴보고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4월 26일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4월 26일 대회의실에서 ‘농업분야 국제협력의 과제와 추진전략’이란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선택·집중으로 원조효과 제고해야

개회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중장기 국가 전략 차원에서 국제농업협력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개도국과 국제농업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코자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유의한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은 최정섭 원장 사회로 열려 농림부 조재호 국제협력과장이 ‘농업분야 국제협력의 과제와 추진 전략’이란 제목으로 첫 발표를 했다.

조 과장은 향후 국제농림협력사업의 추진 방향을 “지원규모가 큰 지역에 선택·집중하여 원조효과를 제고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기구 인력 진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농림유관기관 사업간 연계 및 사후관리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김재훈 서기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농업협력사업의 평가와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김 서기관은 EDCF 지원 사업 중 농업 분야 비중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2009년까지의 EDCF 운용전략 계획을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해균 개발사업이사는 ‘무상지원 농업협력사업의 성과와 과제’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국제사회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현황을 비롯, KOICA의 농업협력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다.

이 이사는 “국제적으로 ODA 농업 분야 원조가 80년도 이후 감소추세이나 농업정책에 관한 지원은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새마을운동 국제사회 높게 평가

우리 연구원 정기환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농촌개발경험의 국제이전: 새마을운동’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새마을운동은 국내의 평가에 비해 국제사회에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 이유는 높은 주민의 참여와 성공적인 빈곤퇴치, 의식개혁 및 주민의 관리능력 향상에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농촌마을이 지니고 있던 전통마을 메커니즘을 현대적인 마을 개발 모델로 개조하여 중앙정부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보급된 한국형 농촌개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협력 효과적인 추진 전략 필요

정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의 사례를 설명하며 “향후 새마을운동은 정부 주도하에 마을 지역사회 조직과 운영원리를 적용하고, 사업실천을 통한 협동정신과 프로젝트계획 및 관리능력을 개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한 신농촌건설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 농촌개발 모델로서 새마을운동의 국제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를 마친 뒤 우리 연구원 김용택 선임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복영 박사, 경원대 소진광 교수, 강원대 전운성 교수, 새마을연수원 정갑진 부원장, 한양대 한홍렬 교수가 각각 토론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농업분야 국제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수원국별 농업·농촌 현황 및 발전 전략에 대한 중장기 연구와 함께 국내농업 관련 단체의 전략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보완 및 프로그램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전산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전산직무교육 파워포인트, 엑셀, SPSS, SAS 교육 실시



직원들의 SPSS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4월 18일부터 사흘간 실시했다.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우리 연구원은 4월 4일 파워포인트교육을 시작으로 각종 직무와 관련된 전산교육을 4월 28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전산 교육은 직원들의 교육 수요 조사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게 되었다.

4월 4일부터 7일까지는 파워포인트 기초와 실무과정을, 4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엑셀기초와 실무과정을 강의하였다. 그리고 4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SPSS 프로그램 활용방법을, 4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SAS 프로그램 활용방법을 각각 교육하였다.

지난 3월 21일부터 시사영어사(YBM)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어학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새국토연구협의회 공동대표회의 개최 2006년 사업 방향 및 현안 논의

우리 연구원 최정섭 원장이 공동상임대표로 있는 새국토연구협의회는 3월31일 소속 연구기관 및 단체의 원장과 대표들이 참석하는 공동대표 조찬모임을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가졌다.

강병기 도시연대 대표 등 14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2006년도 포럼 및 워크숍,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개최 계획을 비롯한 올해 사업 계획과 새국토연구협의회 참여기관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새국토연구협의회는 “지속 가능하고

쾌적하며 살기 좋은 국토 만들기”라는 가치를 내걸고 시민단체와 연구기관, 관련 학회 등 총 16개 기관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연구네트워크로 2000년에

출범하여 올해로 7년째 활동하고 있다. 현재 새국토연구협의회 사무국은 우리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열린 회의에 참석한 공동대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병기 대표(도시연대), 강재홍 원장(한국교통연구원), 권용우 회장(국토지리학회), 김수삼 대표(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김창석 회장(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현영 원장(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박헌주 원장(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

연구원), 윤서성 원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욱 부회장(한국환경정책학회), 이정재 부회장(한국농촌계획학회), 이태일 원장(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진영환 회장(한국지역학회), 최병선 원장(국토연구원).

벤처, 신규 입주 업체 선정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는 4월 18일 입주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를 하여 최종 3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번에 신규 입주업체로 선정된 진도정미소 영농조합법인(대표 이운갑)은 흑색, 유색미, 현미생산업체이고, (주)메리트무역(대표 박진호)은 닭고기 및 농축산물 유통업체이다. 또한 BTT영농조합법인(대표 임성근)은 유용곤충을 이용한 건강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업체로 향후 우리 연구원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에서 2년간 보육을 받게 된다.

FTA관련 농정연구속보 2권 발간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FTA 농산물 양허방식과 시사점과 농업부문 한·칠레 FTA 이행 2년의 평가’라는 제목의 농정연구속보 2권을 발간해 배포했다.

메타검색시스템 개발 4월 1일부터 운영



메타검색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4월 19일 가졌다.

자료정보지원실은 4월 19일 중회의실에서 메타검색시스템의 사용 방법과 사용시 장점을 소개하고, 전자도서관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특징과 이용상 편리한 검색기법 전달을 위한 정보검색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NOS

활용 및 메타검색 방법과 학술초록 및 색인·검색엔진인 SCOPUS 사용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ABI Inform의 사용법과 EBSCO Host 사용법에 대해 일러준 뒤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자료정보지원실은 이러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열어 연구원들의 정보 활용능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자료정보지원실 자료지원팀은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국가전자도서관시스템인 L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을 통해 원문복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NOS(Ndsl On Site)와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는 메타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4월 1일부터 전자도서관 시스템에 올려놓았다.

주요 연구결과 동영상 홈페이지 통해 제공 연구결과 및 2006 농업전망 발표자료 게시

KREI 동영상 정보



외식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이계임 연구위원



한·미 FTA 파급영향
- 권오복 연구위원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
대안 개발
- 송미령 연구위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행태 분석
- 김창길 연구위원

주요 연구결과를 동영상으로 제작,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4월 7일부터 주요 연구결과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www.krei.re.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연구결과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은 연구원 홈페이지 방문객들에게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결과를 확산하고자 기획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편당 동영상 제공 시간은 5분 내외이며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가 파워포인트 화면과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영상은 보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설명자 화면으로 볼 수 있고, 파워포인트 중심으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파워포인트 리스트를 클릭하면 원하는 부분만 볼 수 있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동영상을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잠실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06 농업전망대회 전체 발표 동영상자료를 최근에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다.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 주요 연구결과와는 물론 연구원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동영상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연구결과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게시한 과제명과 연구책임자는 아래와 같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 구매행태 분석(김창길 연구위원)
- △한·미 FTA의 파급영향(권오복 연구위원)
- △외식통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계임 연구위원)
-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 개발(송미령 연구위원)
- △성공적인 농업CEO의 경영전략(김영생 전문연구원)

KREI 세미나 개최

지난 4월 12일 우리 연구원은 중회의실에서 '지역사회정책으로의 전환과 사회적 일자리'란 제목으로 KREI 세미나를 개최했다.

KREI 세미나에서 김재현 건국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나 농산어촌이 해체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며 "농촌이 망하면, 인구의 도시유입과 잠재력 고갈로 도

연구기획자문단회의 개최



올 연구사업 점검과 내년 연구사업을 논의하는 연구기획자문단회의를 4월 25일 가졌다.

우리 연구원은 4월 25일 팔레스호텔에서 연구기획자문단회의를 가졌다.

이번 연구기획자문단회의에서는 올해 추진 중인 연구사업을 점검하고, 2007년도 연구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구성·

시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와 연계하여 "사회정책은 지역사회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속 가능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역통합형 사회로의 전환, 지식기반형 사회로의 전환,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 사람중심형 사회로의 전환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김교수는 사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접근방법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학습의 필요성과 각종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지역자원을 토대로 추진 중인 지속 가능한 지역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한 뒤 토론했다.

김교수는 사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접근방법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학습의 필요성과 각종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지역자원을 토대로 추진 중인 지속 가능한 지역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한 뒤 토론했다.

ARPC 춘계 워크숍 가져

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는 4월 28일과 29일 수안보 농협연수원에서 조직문화 개선 및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워크숍을 가졌다.

농업관측정보센터 워크숍

농업관측정보센터는 매월 주요 의제를 정해 월례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달에는 지난 10일은 본관 4층 회의실에서 송우진 전문연구원이 '축산분기모형(FAPRI)'에 대해 발표한 뒤 토론했다.

운영하는 연구기획자문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 농림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 주요 부처 관계자들과 주요 농업기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연구사업의 충실한 운영과 자문을 위해 주요 농

업인단체를 중심으로 '농촌연구자문단'과 언론인을 중심으로 '농업 문제를 연구하는 언론인 모임', 학자와 소비자단체들을 중심으로 '확대기획조정위원회', 2천여 명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현지통신원' 등을 두어 연구관련 자문을 받고 있다.



‘맞춤형 농정’에 기대한다

김 정 호 선임연구위원

농림부가 금년 업무계획에 근거하여 지난 2월에 새로운 과 단위 조직으로 ‘맞춤형 농정팀’을 신설한데 이어 3월에는 ‘맞춤형농정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착수하였다.

도하개발의제(DDA)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개방 진전, 농업부문 양극화 문제 등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농가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정책과 추진체계를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새로운 농촌형 복지시책을 개발하면서 농정시책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각종 제도와 투융자사업을 수요자 입장에서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만족도와 실효성을 높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농정 추진방식의 혁신

‘맞춤형 농정’은 농정 추진방식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농정은 1995년의 통합실시요령(현재의 농림사업시행지침)이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에 시달하면 시군이 이를 집행하는 ‘하향식 농정’이었으나, 통합실시요령이 도입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신청하는 ‘상향식 농정’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맞춤형 농정은 최종 수혜자인 농업인에게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방식이며, 상향식 농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맞춤형 농정은 농업구조정책의 발전 단계이기도 하다. 1990년대 들어 개방화에 대비하여 문민정부 시절에는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를 지향하여 산업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용절감 기술, 영농규모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어 국민 의정부 때는 중소농과 경영안정이 부각되면서 중소규모로 부가가치 증대를 도

모하는 친환경농업 및 안정적 가족농 육성에 중점이 두어졌다. 그리고 현재의 참여정부는 소득 복지시책을 강화하는 정책기조 하에서 농업의 수익성 저하 및 농가소득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 등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지원은 지역이나 농가 특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농정 추진 방식을 ‘지역 맞춤형’이나 ‘농가 맞춤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농가 유형별로 정책 차별화

현재 논의중인 농가 맞춤형 농정은 “정부가 농가 유형별로 정책프로그램을 메뉴 방식으로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농업인은 스스로 발전 단계에 따라 정책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농정추진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농가 유형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업농은 평생직장으로서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경영개선자금, 교육훈련, 경영컨설팅 등의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과 함께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이나 직접지불제가 중요한 정책 수단이며, 어느 정도 자립경영이 실현되면 정책 대상에서 졸업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농업경영으로 발전하기에 한계가 있는 영세 고령농에 대해서는 경영은 퇴를 지원하고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그간의 농정이 산업 중심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맞춤형 농정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복지정책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평생 영농에 종사한 고령 농업인의 생계지원을 위한 특별소득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겸업농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공동판매 시설을 설치해주거나 가구원의 농외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농은 취미로 하면서 본업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 종사자나 자영업자 등은 농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농정 목표는 국가 목표인 식량 공급보다는 지자체 또는 농가 측면의 지역 활성화 및 소득 증대가 중시되고 있으며, 농정추진 방식도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정책 수요자가 요구하는 메뉴 선택 방식(cafeteria style program)이 일반화되는 경향이다.

농정 신뢰의 계기가 되어야

그러나 정책을 수요자에 맞춘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어디까지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려할 사항이 많다. 따라서 정책 입안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워야 한다. 첫째는 목표의 명확성으로, 정책사업별로 목표 지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는 수단의 차별성으로,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으로 나누어 정책프로그램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셋째는 대상의 배타성으로, 경영체 유형에 따라 정책프로그램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상충성과 중복성을 배제해야 한다. 넷째는 적용의 형평성으로, 정책프로그램이 불균형하지 않도록 양적 또는 질적인 측면에서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 다섯째는 선택의 자율성으로, 농업인 스스로가 필요한 정책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제 맞춤형 농정을 통해 농업인들은 영농과 생활에 대한 장기적인 인생 설계를 하고, 정부는 예측과 통제가 가능한 실질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농정 신뢰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4월 DDA 농업협상의 평가와 전망

임 송 수 연구위원

지난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회의는 세부원칙(modalities) 수립에 실패했다. 2001년 11월에 DDA가 시작됐으니, 5년째 DDA 협상이 공전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05년 12월에 열린 홍콩 각료회의는 2006년 4월까지 세부원칙 수립, 7월까지 각 회원국의 이행계획서 제출, 12월에 DDA 종료 등의 일정을 제시했는데, 그 첫단계부터 삐걱거리는 것이다.

갈피를 못잡은 민감품목 논의

농업협상 특별회의의 펠코너(Falconer) 의장은 앞으로 2주 단위로 3번의 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세부원칙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시한을 설정해 이에 얼마이기보다 신속하고 쟁점 중심의 기술적 논의를 통해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농업협상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속한 수입국 모임 G10은 민감품목 대우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일본 주도로 마련된 이 제안서에 따르면, 일반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 감축률의 절반 수준으로 민감품목의 관세를 줄인다면 그 대가로 수입량(TRQ)은 20% 늘려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민감품목의 관세 감축률이 일반품목의 1/5~4/5 수준이면, 해당 민감품목의 TRQ는 5~35% 늘어난다. 최종 TRQ 증량은 국내 소비량 대비 TRQ 수준에 따라 다른 조정계수(1/5~3)가 적용되어 산출된다.

큰 폭의 시장개방 확대를 추구하는 미국도 민감품목 대우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민감품목의 수는 전체 관세라인의 1%로 제한된다. 이는 EU와 G10이 주장하는 각각 8%와 10% 이상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TRQ 쿼터내 관세와 특별수입제한 조치(SSG)는 폐지하도록 제안했다. 이 제안도 SSG

유지를 원하는 G10과 상반된다.

개도국 특별수입제한조치(SSM)의 대상과 관련해 미국은 국내생산 농산물에 한정하되, 일반 관세감축 공식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새로운 양허세율이 현재 실행세율보다 낮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SSM의 발동요건은 이전 3개년 평균 수입가격의 70% 이하 또는 수입량의 130% 이상으로 하되, 각각 이전 6개월 대비 일정 수준의 수입량 증가와 국내가격 하락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덧붙였다. SSM 발동에 따른 추가 관세도 50% 미만으로 제안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제안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대표하는 G33 개도국 그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G33은 특별품목과 SSM 대상 품목 및 대우 측면에서 개도국이 충분한 신축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반면에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은 미국 제안서를 논의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처럼 시장접근 분야의 협상은 회원국 사이의 첨예한 대립으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구간별 관세감축, 관세감축과 TRQ 증량이 연계된 민감품목 대우, 특별품목과 SSM 규정 등 기술적인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마리를 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내보조는 블루박스가 관건

펠코너 의장은 협상회의 이전에 배포한 참고 문서(reference papers)에서 그린박스 관련 의제로 직접지불과 연계한 기준기간의 고정(불변), 개도국 관련조항 추가, 이행결과 통보 강화 등을 내놓았다.

개도국들은 식량안보와 농촌개발, 생계형 농가, 농지개혁 등이 반영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선진국들은 대체로 기존 조치의 유지를 원한다. 특히 미국

은 기준기간에 관한 기존 규정은 놔두고 개도국 관련 일부 내용만을 반영하는 그린박스 제안서를 4월에 제출했다. 이는 그린박스에 관한 개도국 요구사항을 어느 수준 반영하는 선에서 타협될 수 있음을 뜻한다.

국내보조 협상에서 뜨거운 감자는 블루박스 관련 규율을 새롭게 설정하는 일이다. 블루박스는 감축대상 보조(AMS)보다 시장왜곡 효과가 적은 직접지불을 말한다. 개도국들은 블루박스의 총액 상한 설정과 더불어 품목별로 엄격한 추가 규율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문서 중심의 협상 추진

이는 무역왜곡 보조의 상당부분을 블루박스로 전환해야 하는 미국을 겨냥한 공세이다. 만약 EU와 개도국의 협공이 성공한다면 미국은 2007년 농업법을 통해 대대적인 국내 농정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자국이 유리한 시장접근 분야 협상에서 미국이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

주요 회원국의 힘 겨루기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몇 주안에 급격한 협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펠코너 의장은 주요 사안별 참고 문서를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합의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네바 중심의 비공식 회의를 자주 열어 이해 당사국과 집중된 협의를 가진다는 계획이다.

최종 수치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소수 회원국이 주도하는 그린룸 협상이 더 많이 활용될 테지만, 우리나라가 취할 최선의 전략은 G10과 G33 그룹과 공조아래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일일 것이다. 바람직하지 못한 합의보다 협상 결렬이 차라리 낫다는 인도 장관의 배짱이 먹혀들어갈 지도 지켜볼 일이다.

일본, 지산지소 운동으로 내발적 발전 확산

지산지소(地產地消)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활동이다. 최근 일본에서 농업이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배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하여 지역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는 지산지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산지소는 원래 우리나라의 '신토불이'(身土不二)에서 유래하였다. 인간의 장(腸)에 있는 미생물은 인간이 태어난 인접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일수록 궁합이 맞는다는 점에 연유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것(地産)을 지역에서 소비·판매(地消)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최근에는 '지역 소비자의 기호에 적합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생산한다는 측면이 추가되어, '지역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농산물 생산과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활동' 등 양면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얼굴이 보이는 위치에서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생산자가 소비자의 기호를 파악하여 이것을 생산현장에서 활용한다. 그래서 식품이나 농업에 대한 이해 확대를 비롯하여, 농가의 소득원 증대, 소비자의 기호에 대응한 생산, 지역 실정을 살린 농업 육성,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산지소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산지직판장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활동(산지직판),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활동(농산물가공), 학교 및 복지시설 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는 활동(급식제공), 지역 가공업자나 식당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활동(원료농산물공급), 그리고 채소 트러스트, 대두 트러스트, 전통주 트러스트 등 소위 생산자·소비자 연대형 교류활동(생소연대) 등이 보편적이다.

지산지소의 대표적인 활동인 산지직판장 운영과 농산물 가공 공장에서의 지역농산물 취급 및 판매실태, 그리고 학교급식에서 지역농산물 사용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자.

'산지직판'에서 '학교급식' 까지 다양하게 전개

농림수산성 조사결과(2005)에 의하면, 산지직판장은 전국에 1만개소 이상에 달하며, 설립주체는 지역농협이 53.2%로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시정촌(28.1%), 지자체·농협·지역기업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제3섹터(18.7%) 순이다. 직판장의 운영주체는 농협(37.0%), 제3섹터(16.6%), 농가(11.8%) 등의 순이며, 나머지는 임의단체·개인 등(34.6%)이다. 그리고 연간 판매액(2004년)은 직판장당 7,460만엔에 달하며, 지역산이 4,759만엔으로 판매총액의 63.8%를 차지한다.

또한, 농산물 가공공장도 지산지소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이다. 가공공장당 원료농산물 구입액은 1억 3,090만엔이며, 이 중 지역산이 1억 408만엔으로 전체의 79.5%에 달한다. 공장당 판매액은 3억 1,246만엔으로 증가 추세이다.

그리고,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을 보면, 초중학교의 83.4%에서 지역산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학교는 14.0%에 불과하다. 또한 향후 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산물을 늘리겠다는 의향이 76.4%에 달한다. 앞으로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 사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지역 복지시설 등의 급식에도 지역산의 소비확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스스로에 의한 문제 인식과 공유가 필수

일본에서 도매시장을 경유한 농산물 판매액 비율은 정체하는 반면에, 산지직판장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3~4년후 산지직판장당 매출액이 '1억엔 시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산지소운동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더욱 확산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가격이나 안전성,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면에서 지산지소의 '객관적인 효과'가 입증되어야 한다.

둘째,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이 '지역산'이라는 보증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가공품의 원료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 등이 정비되어야 한다. 광역유통의 경우는 위장표시나 불법 표기 등의 여지가 높지만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유통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낮아진다.

셋째, 지산지소의 비즈니스 영역인 '지역시장'이 형성, 확대될 전망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인구과소 지역에서는 지역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역의 영역을 적절히 확대한다든가, 가공품 개발이나 도농교류 등을 통하여 판매액을 확대하는 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 스스로에 의한 '지역문제의 인식과 공유'가 필요하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장래 예상되는 지역문제를 파악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내발적 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다.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과 도하개발어젠다에 의한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지역의 기간산업인 농업을 장기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것이 매우 긴급한 과제이다.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래의 신토불이를 점검하여 재점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태곤 연구위원>

한국 농업 · 농촌 혁신 과제와 연구원의 역할

정영일 6대 원장

오랜만에 연구원을 방문해 나날이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니 참 기쁩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농업 문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지켜보며 연구원에 더욱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저는 먼저 '농정패러다임의 재정립'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제안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대상, 정책이념 재정립 필요

우선 농정대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 농가는 획일적인 평균개념을 가지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유형이 다르므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정의 영역이나 범위를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선진국은 농업정책, 농촌정책, 식량정책이 기초를 이루고 있고, 유럽도 농촌정책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만 가지고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이념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등에 대해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법을 제대로 만들어 일관성 있게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동의 합의사항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농정혁신과 과제'라는 글을 통해 제안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농업·농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농업·농촌의 비전과 정책 목표를 질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정 수단의 문제를 제대로 다뤄야 합니다. 세계적 추세인 농촌개발정책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 문제를 올바르게 인지해야 합니다.

돈을 쓰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정책추진 체계에 있어서 주체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향후 정부와 농업인 또는 시

장과 정부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현재 농업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은 그들만의 잔치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토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수탁연구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농업본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느낌이고, 연구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새로운 분야에 대한 노력과 탐구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공급자들의 생각은 거기에 못 미치고 있고 새로운 연구영역에 대한 개척노력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종합적인 시각으로 비전 제시해야

연구원의 독자성과 독립성, 객관성에 대한 의식도 약해진 것 같아 한번쯤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농업·농촌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곳이므로 좀 더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농업·농촌의 비전제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면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것에 발맞춰 연구원이 농정의 비전과 전략의 산실로 농정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내부는 물론 농업외부와 연결하는 기능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농업이 산업 중 한 부분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폭넓은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고 연구자들도 농정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자기의 입지를 스스로 구축하는 길입니다.

연구원의 역할을 확충·신장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토의하고 모색하는 고민을 더욱 깊이 하길 바랍니다.

푸드시스템과 경영연구도 본격화해야

우리 농업·농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떻게 유능하고 의욕적인 사람을 농촌에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농업 인력을 보강하는 네덜란드식 정책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농업자체만으로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농협력,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이해, 합의도출에 대해 연구원이 고민해야 합니다.

앞으로 연구원은 푸드시스템 전반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며 큰 틀을 바꿔야 합니다.

구조정책과 더불어 경영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업태별로 경영모델을 만들어 개별경영체 발전에 뒷받침해야 하는 것과 우수경영체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농촌개발도 문제입니다. 정부 돈으로 사업하고 돈을 버는 한시적인 마을개발 사업을 바꿔서 다양하고 종합적인 패턴을 가지고 농촌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연구를 해야 합니다.

직불제가 반드시 농가소득이 아님을 인지하고 직불제에 대한 한층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산조정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농촌여성과 가정에 대한 연구도 강화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농촌으로 들어왔을 때 아이들의 교육과 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응비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4월 정기인사 단행, 선임연구위원 4명 승진·발령

선임연구위원 김용택, 정기환, 최지현, 오내원 박사



김용택 선임연구위원

우리 연구원은 4월 1일자로 선임연구위원에 김용택, 정기환, 최지현, 오내원 박사를 임명했다. 그리고 연구위원엔 김연중 박사를, 부연구위원엔 이상민, 김윤식 박사를, 전문연구위원엔 류영섭, 신완식 박사를, 초청전문연구위원엔 송우진, 김재환, 김민정, 김혜영, 박주영 씨를 각각 임명했다. 그리고 선임관리위원엔 옥치목 씨를, 1급 관리위원엔 한천희 씨를, 2급 관리위원엔 서정필 씨를 각각 임명했다.



정기환 선임연구위원



최지현 선임연구위원



오내원 선임연구위원

이번에 승진한 △김용택 선임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 1984년에 연구원에 들어와 재정금융연구 등의 연구를 해 왔고, 농정연구센터장을 역임하였으며, 최근에는 국제농촌개발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정기환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매릴랜드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경도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교육훈련실, 농업사실 실장과 농림기술관리센터 기획평가실장, 농촌발전연구센터장을 역임하였으며 농촌개발, 해외농업개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다.

△최지현 선임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고, 미국 워싱턴주립대학에서 농업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1981년도에 연구원에 들어와 주로 식품소비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 1월부터 농산업연구센터장을 맡아 센터를 이끌어 가고 있다.

△오내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다. 1982년도에 연구원에 들어와 농촌발전연구센터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농림부장관 자문관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조정실장으로 기획실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소득정책과 지역농업개발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

원장, 호주정부 초청 訪濠



최정섭 원장은 호주정부초청으로 농업 관련 기관 방문과 세미나 발표를 위해 4월 2일 출국하였다가 8일 귀국했다. 4월 13일은 농협대학에서 특강을 하였다.

연구원 식목행사 가져



연구원은 4월 5일 전직원들이 참석하여 연구원 뒷산상을 비롯 연구원에 심기

어진 각종 나무에 거름을 주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식목행사를 가졌다.

연구진 동정

△이동필 선임연구위원은 4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 농산물의 가치재발견과 소비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통술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4월 27일 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FTA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김태곤 연구위원은 4월 7일 해양수산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WTO 체제에서의 통상여건 변화와 국내농업대책'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김영훈 연구위원은 4월 24일 재정부 주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개발 및 남북경협 추진 전략 수립 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성주인 전문연구위원은 4월 3일 나주시 주최로 열린 나주 지역혁신리더 교육에서 '농촌마을개발사업 방향과 과제'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연구원 내방객

△김태현 농촌사회학회장이 4월 21일 우리 연구원은 방문, 최정섭 원장과 정기환 선임연구위원을 만나 2008년 개최하는 세계농촌사회학회 행사 등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술포럼 현장 투어, 함평마라톤대회 참가



체력단련회 11명이 4월 22일 함평나비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우리술포럼(회장 정명채) 11명의 회원은 4월 8일 선운산 복분자주를 생산하는 (주)홍진에 방문하여 제조시설 등 복분자 생산공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사업현황을 들으며 대기업이 복분자

시장에 참여하면서 불어닥친 문제와 복분자주 과잉생산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나누며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 학원농장 등을 돌아봤다.

체력단련회(회장 김영훈) 회원 11명은 4월 22일 함평나비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연구원 가족들의 건강과 친목을 증진하고, 현지 주민들과 군 관계자

들에게 우리 연구원을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

남시회(회장 조명기) 회원 10여명은 2006년 시조회 겸 춘계 출조 행사를 4월 28일 충남 예당저수지에서 가졌다.